



제목	The Sultan's World: The Ottoman Orient in Renaissance Art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Hatje Cantz
발행일	2015. 7. 2.
저자	Robert Born Michal Dziewuski Guido Messling
출판도시	Brussels
페이지수	303
ISBN 또는 ISSN	978-3775739665

내용 요약

이 책은 르네상스 시대 유럽과 오스만 제국과의 문화적 교류를 주제로 3편의 에세이와 6편의 사례연구 및 르네상스 시대의 수준 높은 회화들과 다양한 예술품들을 함께 담고 있다. 오스만 제국은 오랫동안 유럽의 시각에서 최대의 적으로 비쳐졌지만, 이 책에서는 순례자, 여행자, 외교관, 군인, 전쟁 포로 등 다양한 개개인들의 문화적 교류와 이러한 교류의 흔적들이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3편의 에세이는 15세기부터 17세기 초까지 오스만 제국과 폴란드와 중부 유럽의 국가들과의 평화조약, 오스만 제국과 라틴 유럽과의 문화 교류, 유럽의 르네상스와 술탄의 초상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6편의 사례연구에서는 베니스에 등장한 오스만인들의 모습, 북유럽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와 오스만 제국, 콘스탄티노플의 유럽 르네상스 화가들, 복식 관련 일러스트와 앨범을 통해 본 동서양의 정보와 이미지 전파, 유럽 궁정문화에 영향을 준 오스만 제국의 문화 등 주로 유럽 회화자료들을 토대로 당시의 문화교류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럽 예술가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르네상스 시대 오스만 문화에 이끌렸는지, 유럽의 문화적 관점에서 오스만 세계가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알 수 있다.